

◀기쁜 우리 날들▶ 어느 무신론자의 기도 이어령

하나님
나는 당신의 제단에
꽃 한 송이 촛불 하나도 올린 적이 없으니
날 기억하지 못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모든 사람이 잠든 깊은 밤에는
당신의 낮은 숨소리를
듣습니다.

그리고 너무 적적할 때 아주 가끔
당신 앞에 무릎 꿇고 기도를 드립니다.
사람은 별을 볼 수는 있어도
그것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별사탕이나 혹은
풍선 같은 것을 만들지만
어둠 속에서는 금세 사라지고 맙니다.

바람개비를 만들 수는 있어도
바람이 불지 않으면 돌아가지 않습니다.

보셨는지요 하나님.
바람개비를 든 채 잠들어버린
유원지의 아이를 말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저 많은 별들을 만드셨습니까

그리고 처음 바다에 물고기들을 놓아
해엄치게 하실 때
당신의 손으로 만드신 저 은빛 날개를 펴고
새들이 일제히 하늘로 날아오를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셨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 작은 한 줄의 시를 쓰기 위해서는
발톱처럼 무디어진 가슴을 찢어야 하고
코피처럼 진한 후회와 눈물을 흘려야만 하는데
하! 하나님은 어떻게 그 많은 별들을
축복으로 만드실 수 있었는지요.

하나님 당신의 제단에
지금 이렇게 엎드려 기도하는 까닭은
별을 볼 수는 있어도
그것을 만들지도 다 셀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용서하세요 하나님.

원컨대 아주 작고 작은
모래알만한 별 하나만이라도
만들 수 있는 그 힘을 주소서.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감히 어떻게 하늘의 별을
만들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저 이 가슴 속 캄캄한 하늘에
반딧불만한 작은 별 하나라도
만들 수 있는 힘을 주신다면
내 가난한 말들을 모두
당신의 제단에 바치겠나이다.

.....
좀더 가까이 가도 되겠습니까 하나님
당신의 발끝을 가린 성스러운 옷자락을
때 묻은 이 손으로 조금 만져 봐도 되겠습니까.

.....
.....

◀그땐 그랬지 ▶ 루치아노 파바로티

1990년 로마 월드컵 결승전 전야제! 플라시도 도밍고, 호세 카레라스, 루치아노 파바로티의 Three Tenor 공연은 금세기에 기록될 만한 공연이었습니다. 거기에 '쥬빈 메타'의 흐르는 물결 같다가도 카리스마 넘치는 지휘는 Big 4 공연이라고 해도 좋을 듯했습니다. 앵콜곡을 부르기 전 파바로티의 손에 들려 있던 손수건으로 카레라스의 얼굴을 닦아 주던 장면은 아직 가슴 찡하게 남아 있는데 그의 사망소식은 아쉬움으로 보태집니다. 첫 소절 '케 벨라 코사에....'를 그의 목소리로 시작하던 Three tenor의 "오 솔레 미오"가 이젠 저문 강녘의 태양처럼 쓸쓸하게 느껴질 것 같습니다.



교회 목표 하나님만이 삶과 교회의 주인	예수님 안에 답이 있습니다(빌4:13) 갈보리교회 Calvary Presbyterian Church	교회생활지침 누가 10:37 *자원함 -섬김과 봉사 *의명성 -명예
제9권 36호	기초성경공부이수, 정장으로 예배, 남 이야기 금지	2007년 9월 9일
☎ 369-5077. Howe St. City(Ak Girls Grammar School Hall)		www.calvary.org.nz

◀하나님! 나의 하나님▶ 문어대가리를 사랑한 하나님 심명희



29살 정숙이가 기도를 시작한 것은 17년 전이다. 사업에 실패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마저 뇌출혈로 쓰러졌다. 생활고를 견디다 못해 어머니는 정숙씨를 큰댁 양딸로 보냈다.

큰 어머니는 냉정하고 엄격했다. 구박과 청소 빨래 설거지 집안 일이 초등학교 3학년의 그녀에게 쏟아졌다. 불안과 긴장의 나날이었다. 어느 날 머리에 이상이 생겼다. 탈모증이었다. 뒤통수에서 시작한 탈모는 3년 만에 머리를 초도화(?) 시켰다. 학교에서 '문어대가리'라고 놀렸고 왕따가 되었다. 그때부터 정숙이의 가발인생이 시작되었다.

정숙이를 만난 것은 보건의소였다. 음식점 주방보조인 그녀는 위생검진을 하러 올 때마다 물었다. "약사님에 머리카락 나는 약은 업능교?" 비로소 나는 그녀의 머리위에 어색하게 얹혀있는 가발의 내력을 들었다.

정숙이의 간절한 기도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인생은 꼬여만 갔다. 3년의 투병 끝에 큰 어머니는 간암으로 세상을 떠났다. 중학교 졸업을 앞두고 가출했다. 일자리가 없었다. 가발이 문제였다. 비호감 외모라는 것이 이유였다. 겨우 얻은 일이 주방 설거지다.

그녀를 따라 보건소 골목 끝에 있다는 그녀의 자취방에 갔다. 어두컴컴하고 누추한 월세4만원의 구석방에는 혼자 불행과 싸워온 17살의 인생이 고스란히 느껴졌다. 그 방에서 아무에게도 보여준 적이 없다는 정숙이의 '문어대가리'를 보았다. 그날이후 정숙이는 나를 언니라고 불렀다. 이제 그녀의 문어대가리는 나의 문어대가리이기도 했다.

"언니야 내 시험 붙었데이!" 가슴 졸이며 기다리던 소식이었다. 7년전 정숙이는 조리사가 되었다. 지금 그녀는 유명호텔의 수석조리장으로 씩씩하게 일한다.

17년 동안 "머리카락 아니면 죽음을 달라"던 정숙이의 협박에 하나님은 끄떡도 하지 않았다. 머리카락도 죽음도 허락하지 않았다. 대신 흰 모자를 주셨다. 지금 그녀의 머리에 머리카락 대신 조리장의 모자가 찬란하게 빛나고 있다. 요즘 정숙이는 하나님에게 협박 아닌 투정 섞인 기도를 한다. 닭을 원했는데 꿩을 주셨다고. 청개구리 하나님이라고.....

◀말씀따라 행하기▶

예수님의 웃은 찢겨 나뉘었지만
예수님의 면류관은
결코 깨져 나뉘어지지 않습니다

◀인품따라 행하기▶

배고프고
추울 때의 인품이
진짜 인품입니다

주일예배

(* 표에 일어서시기 어려운 분은 앉으셔서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생각나게 하는 연주 찬양

목도와 참회의 기도 Pray & Confession	Calvary(성가대)	다 같이
*찬 송 Hymn	16 장	다 같이
*성 시 교 독 Response Readingd	34(잠언 3장)	
*신 앙 고 백 Apostle's Creed	사 도 신 경	다 같이
찬 송 Hymn	197장	다 같이
기 도 Pray		이광희 장로
성 경 봉 독 Scripture Reading	호세아 1:1-11	인 도 자
성가대 찬양 Choir		나무십자가 성가대
설 교 Sermon	하나님이 우리는 너무 힘들게 하실 때	김성국 목사
찬 송 Hymn	219장	다 같이
헌 금 기 도 Offering Pray		인 도 자
교 회 소 식 Welcome & Announcements		인 도 자
응 답 송 Response Song	여기에 모인 우리	다 같이
축 도 Benediction		김성국 목사

“하나님의 아름다운 전이 건축되어져서 구원의 방주가 되어지길 기도하는 마음으로 드립니다. 아멘”
-성전건축헌금 드린 교우의 헌금봉투에서-

성전건축헌금 지난주일: \$5,404 총액: \$ 381,643.70

◆9월 예배위원◆

일자	기도	주 차	안 내
2	노은숙		<현관> 김순자 노은숙
9	이광희	*최현철서재오	<성전입구> 임혜자
16	이규임	향촌직	<새교우> 이광희 장유진
23	이금선		
30	이재영		

◆9월의 교회력◆

주 일	모임 행사
2	정기구역예배(7)
9	권사기도회(13)
16	
23	구역장,인도자(28)
30	이삭줍기주일 선교회월례회

『교회 생활』 2007 신앙생활: 하루에 7분기도하기 매일 가족 위해 5분 매일 교회 위해 1분 매일 남을 위해 1분	『교회 등록』 *3주간 예배,친교참석 이후에 등록 여부를 결정하십시오. *여러 교회를 다녀 보십시오. 그래야 신중하고 바른 판단이 됩니다
주일예배: 아동, 학생: 오후 1시 수요일예배: 7:30 pm	새벽기도회: 금 5:50 청년부: 수요일 7:00 pm

- 교우소식
<시모 병환으로 한국 방문> 추미선 집사. 함께 세월을 지내다보면 시어머님과 친정 어머니는 모두 같은 피붙이 가족이 되어 계십니다.
<이사 예정> 장기숙 집사. 17일(월) 오전
- 정기당회 속회 : Alpha 성경공부 후 교회사무실
- 권사 기도회 <일시> 13일(목) 저녁 7:30분. 교회 사무실
- 성전건축을 위한 바자회 확대회의
*예배 후 Dress Room <대상> 구역장, 선교회장, 청년회장, 실무진행팀
- 학생부 수련회 식사 자원봉사를 기다립니다 (봉사부) <문의: 이금선 권사>
*Tea Time을 하면서 3,4,5 여성교회장 모임 갖습니다.
<장소?> 이금선 권사님이 주방 근처 어디 계신지 눈여겨 보시고 다가가 주세요.
- 교회비품재물조사 <문의> 박상옥, 박병민 집사
*교회비품을 소지하고 계신 성도께서는 비품티켓을 가져다 부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금도 우리의 성전 건축을 위해 기도하시고 계시지요? 기도하시는 모습 떠올릴 때면 아주 큰 힘이 됩니다.
- 수요일예배. <수요일 저녁 7:30분> 찬양과 말씀과 기도
*한 번 더 기도하고 한 번 더 말씀을 대하는 시간들이 쌓여 그렇게 우리의 믿음은 깊어져 가게 해야 합니다
- 금요새벽기도회. <매주 금요일 새벽5:50분>
*다른 모든 사람들이 잠들어 있을 때 깨어 일어나 남들이 모르는 비밀스러운 나만의 시간을 갖는다는 것, 황홀하기까지 합니다

◀작한 시인들▶ 해바라기의 비명(碑銘)

함형수(1914~46)

나의 무덤 앞에는
그 차거운 비(碑)를 세우지 말라.
나의 무덤 주위에는
그 노오란 해바라기를 심어 달라.
그리고 해바라기의 긴 줄거리 사이로
끝없는 보리밭을 보여달라.
노오란 해바라기는 늘 태양같이
태양같이 하던 화려한
나의 사랑이라고 생각하라.
푸른 보리밭 사이로
하늘을 쓰는 노고지리가 있거든
아직도 날아오르는
나의 꿈이라고 생각하라.

우연찮게 읽다가 큰 울림으로 다가온 시를 만나면 한 동안은 공중에 떠 있는 느낌입니다. 몇 일 전에 읽은 이 시가 내게는 그런 시였습니다.
이름 한 번 내었다가 묘비명 화려하게 쓰여지고 싶은 마음이 누군들 없겠습니까! 그런데 시 하나 잘못 만나 '시인의 마음만큼 못하면서 무슨 주님을 따른다고 하느냐'는 그 분의 음성이 들리는 듯하여 초라해졌습니다.
해바라기처럼 하늘의 하나님 생각 많이 하다가 씨앗처럼 땅에 푹 떨어지고 싶었습니다.